

요약

재택입원은 환자가 가정에서 병원 입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성기 치료를 받는 것으로 여러 국가에서 재택입원 시스템이 도입·확대되고 있으며, 사망률 및 재입원율 감소·입원일수 단축·비용 절감·환자 만족도 개선 등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한국의 경우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만성·전환기 관리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급성기 입원 치료와는 차이가 있음

- 재택입원(Hospital at Home; HAH)은 일반적인 원격의료와는 달리, 환자가 가정에서 병원 입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성기 치료를 받는 것으로 프랑스는 1970년부터 이를 법제화하여 체계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 영국, 대만 등의 국가에서 재택입원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추세임
 - 세계 재택의료 학술대회(World Hospital at Home Congress)는 재택입원에 대해 ‘환자 자택(또는 요양시설)에서 병원 인력·장비·기술·약제를 제공하여 급성기 입원을 대체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 외래진료, 자가정맥주사, 만성질환관리, 주간치료시설, 일반 방문간호 등은 재택입원에 포함되지 않음
 - 프랑스는 1970년 재택입원(Hospitalisation à Domicile; HAD)을 법제화하고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장해왔으며,¹⁾ 영국은 2024년 8월 ‘가상 병동(Virtual wards operational framework)’을 발표하며 NHS의 관리 감독하에 재택입원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음²⁾
 - 프랑스는 3세 미만의 유아 치료, 산전·산후 치료, 완화·관찰 치료, 정형외과 치료, 일회성 치료(단, 입원 수준), 복합 간호(중증 간호가 필요한 경우)의 범위 내에서 재택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³⁾ 영국은 호흡기 질환, 심부전, 위장염 및 다양한 급성 질환에 대해 재택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2019년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재택입원(Mobile Inpatient Care at Home) 시범사업⁴⁾을 시작한 후 2022년 정부 중심의 시범사업과 함께 재택입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⁵⁾ 대만은 2024년 국민건강보험청의 주도 하에 재택입원 시범사업을 진행함⁶⁾
- NHS와 대만의 재택입원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 및 재입원율은 병원 입원 치료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병원 입원 대비 입원일수 단축, 비용 절감, 환자 만족도 개선 등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1) FNEHAD 홈페이지(<https://www.fnehad.fr/>), L'Hospitalisation À Domicile, QU'EST-CE QUE L'HAD?

2) NHS England(2024. 8. 27.), "Virtual wards operational framework"

3) ATIH(2025. 1.), "Guide méthodologique HAD 2025 (version provisoire)"

4) Chua CMS, Lim EWZ, See Tho WH, Asada Y, Peters KE and Lai YF(2025. 6. 2.), "Hospital-at-home care in Singapore: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health system partners' state of readiness, and policy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essential to support scale-up", *PLoS one*, vol. 20, no. 6

5) Ministry of Health Singapore(2024. 3. 6.), "Delivering Care Beyond Hospitals"

6)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Healthcare(2025. 9. 16.), "Hospital-at-Home in Taiwan: Reducing hospital stay and medical expenditures"

- 2022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NHS의 재택입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병원 입원 환자 대비 입원일수가 단축되고, 재택 입원 환자 1명당 약 1,958파운드(약 37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사망·재입원 등의 주요 결과 역시 병원 입원 환자와 동일하거나 더 좋았고, 환자의 만족도도 긍정적으로 조사되었음
- 2024년 시행된 대만 시범사업의 경우, 재택입원 환자의 경우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재원일수가 3.4일 단축되었으며, 평균 의료비가 67.6% 절감되었고,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재택입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데이터·수가에 대한 체계가 선제적으로 마련 되어야 하며, 프랑스의 경우 공중보건법에서 재택입원에 대한 데이터 및 수가체계 등을 확립하고 있음

- 프랑스는 ‘공중보건법 제18조: 재택입원 활동’으로 재택입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재택입원 다학제 팀 구성·의사 주도의 치료 연속성 보장(현장·원격 포함)·정보시스템·전자기록·대내외 협력 및 규정집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환자·가족·재택의료팀 간 24시간 연결을 보장하는 원격 통신 시스템을 갖추 것을 명시하고 있음⁷⁾
- 프랑스는 모든 재택입원에 대해 병원정보기술청(ATIH)이 제공하는 양식에 맞춘 환자별 표준 데이터(RPSS)가 작성 되어야 하고, 이는 지역보건청과 건강보험의 감독 및 국가 데이터베이스(PMSI-HAD)에 축적됨
 - 공중보건법에 따라 원격의료 행위·처방·날짜·시간·의료진 등에 대한 정보는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함
 -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은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프랑스 감독기관(CNIL) 지침에 따르며, 환자의 건강정보를 보관·호스팅하는 사업자는 ‘HDS인증(ISO 27001)’⁸⁾ 기반에 보건 특화 요건을 추가한 국가 인증’을 받아야 함
- 프랑스의 재택입원 수가 체계는 입원실 이용료 대신 환자별 표준 데이터(RPSS)를 근거로 하루당 요금(GHT)으로 산정되며, 하루당 요금의 기본 금액은 매년 요금 고시로 공표되어 건강보험 지급의 기준이 됨
 - 하루당 요금(GHT)에는 기본적인 인력·장비 등의 비용을 포함하지만, 일부 고가의 약제·특정 품목은 별도로 청구 되며, 환자의 치료 유형·의존도(환자의 기능 상태 지표)·치료 기간 등을 조합해 그룹을 분류하고, 해당 그룹에 맞는 요금이 적용됨

○ 한국의 경우 2019년부터 시작된 재택의료 시범사업⁹⁾과 2022년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¹⁰⁾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이는 만성·전환기 관리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급성기 입원 치료를 대체하는 재택입원(HAH)과는 차이가 있음

- 한국의 경우, 2019년 복막투석 환자, 2020년 1형 당뇨병환자,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분만 취약지 임산부, 심장 질환자, 재활환자, 2021~2022년 암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한국은 2022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월 1회 의사의 방문 진료, 월 2회 간호사의 방문 간호를 통해 이루어짐

7) Légifrance, Code de la santé publique, Sous-section 18 (D6124-194 à D6124-215)

8)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MS) 구축 및 유지를 위한 국제 표준을 의미함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 11.),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7. 6.),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